

이제는 행복한 언어들을 즐겁게 말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이 그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전스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26년도 수련환경평가 완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병원 4층 중강당에서 실시된 2026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평가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수련전문 과목별 지정 기준, 근무 환경 적정성, 수련 교육 실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각 진료과는 지도 전문의 현황, 연간 진료 실적, 수련 시간 관리, 교육과정 운영, 의무기록 충실성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에 참여했다. 각 진료과와 관련 부서가 사전에 점검하고 항목별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평가는 큰 차질 없이 원활하게 마쳤다.



2026 상반기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13일 주요 병동 및 진료 부서를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실시했다. 이번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백용해 병원장을 비롯해 진료부원장, 간호부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여했다. 경영진은 82병동, 121병동, 신생아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진단검사 의학과, 신경계검사실, 재활의학과 등 원내 부서를 방문해 실무진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 사항이나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백용해 병원장은 "환자 안전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교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워크라운드를 이어가며, '안전 책임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명을 살리는 또 하나의 간호,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이어진 따뜻한 실천

환자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선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다.

71병동 김채민 간호사는 최근 자신의 조혈모세포가 혈액질환 환자와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망설임 없이 기증을 결정했다. 대학 시절부터 생명나눔의 가치에 공감해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해 온 그녀는 기증을 위한 사전검사 과정에서 혈관 상태로 인해 중심 정맥관 삽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젊은 간호사로서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뿐인 삶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기증 절차를 끝까지 마쳤다. 환자의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간호사는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김채민 간호사의 선택은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숭고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언론 게재 제안에 김 간호사는 "조금 부끄럽지만 이 글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기증을 결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라며 흔쾌히 동의했다. 자신의 선행보다 생명나눔의 확산을 먼저 생각한 따뜻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김채민 간호사의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많은 생명나눔으로 이어지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실천하는 생명 존중과 따뜻한 간호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